

# 현대패션에 나타난 ‘차브(CHAV)’의 조형적 특성:

## 키치적 요소와의 조형적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현명관\* · 장애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최근 서민적 코드들이 패션에 접목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이 조명되어지고 있다.

기존 Hierarchic(계급적) 정보체제에서의 기득권층에서 발생되어졌던 문화코드들이 디지털화한 현대의 Interactive(쌍방향) 정보체제에서는 평행선상에서의 공유가 이루어졌고 정보의 해석은 개인의 몫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하위문화뿐만 아니라 하급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으며 그들의 사회적 표현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자체적인 문화적 상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위문화가 발달한 영국에는 모드, 펑크, 스킨헤드, 크러스티, 레ιβ 등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하위문화란 2차 대전 이후 영국 등지에서 청소년 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개념으로써 이들의 하위문화란 ‘노동계급 청년 하위 문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위문화보다 하위에 있는 문화’라고 알려져 있지만 하위문화란 지배문화와는 상이한 신념 및 가치 체계, 라이프스타일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보보스, 슬로비, 다운쉬프트 등도 최상의 산업적 생산력을 요구하는 기존 체제의 생활 방식과는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하위문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하급문화란, 스코트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NEDS(non-educated delinquents)라는 비하적 명칭처럼 “비노동, 비교육, 불량성”으로 구성 되어진 부류를 의미한다. 나름대로의 생산적

위치에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하위문화와는 달리 역사적, 인종적, 환경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 부류의 문화인 것이다.

이들은 섬, 빈민촌, 산업지역의 변두리 등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불량한 생활을 하는 이들로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영국 남부 지역의 ‘CHAV’족(로만어로 ‘어린이’라는 뜻) 호칭을 이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쓴다. 영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인 ‘차브(CHAV)’는 어원상으로는 ‘농촌 하층 계급 출신의 일탈 청소년’을 의미한다. 악취향의 패션을 즐기고 싸구려를 자처하며 자신들의 취향을 뽐내기 공개하는 하위의 청년문화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던 차브 현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고, 차브 패션이 21세기 쿨(Cool)의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최근 이들의 존재가 부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스포츠와 연예사업의 시장 확대로 저소득층 출신의 유명 인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음악과 영상, 스포츠에서 활동을 펼치며 ‘CHAV’의 우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차브(CHAV)의 조형적 특성을 현대 대중문화·소비문화 시대의 흐름을 형성하는 척도를 제공하기도 하는 키치적 요소의 조형적 특성과 비교해 봄으로써 차브(CHAV)의 조형적 특성을 불량성(Badness), 혼성·모방성(Composition), 대중성(Popularity)으로 코드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